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선미라*

【 차 례 】

- I. 서언
- II.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
- III. 모달리떼와 상징성
- IV. 표층과 심층구조
- V. 결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양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 연구위원. 이 논문은 2018 한국기호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폐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열쇠어 : 칼 맑스, 동학농민운동, 사발통문, 선언문, 개혁문, 모달리떼, 상징성, 기호학, 근대성

I. 서언

이 논문은 칼 하인리히 맑스의 선언문(이하 선언문으로 표기)과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이하 개혁문으로 표기)에 대한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¹⁾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²⁾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공시적 동시성에서 실천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텍스트로서의 선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 공시적 의미가 현대인의 행동철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통시적 관점으로 접목되어 상징성에서 그 공통의 텍스트성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독일어와 프랑스어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을 참조한다. 1847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입한 의인동맹(義人同盟, Bund der Gerechten)은 공산당 선언을 동맹의 정책문서로 채택하였다. 그 해 여름 조직은 재정비되었고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다시 태어났다.

2)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과 12개조 폐정 개혁안을 참조한다.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송준섭(宋俊燮)의 집 마루 밑에 70여년 동안 묻혀 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소에 보관되어 있다.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의 구조 속에서 회의주의나 교조주의가 되어서 인간 본연의 속성을 버리고, 파괴적 현상으로 고착되는 불합리성의 제도에 제동을 걸고, 그 달리는 광기의 수레바퀴를 빼어버리는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행동 철학자인 칼 맑스에게 있어서 기본이며 필수적인 일이었으며, 인류를 위한 과업으로 인식된다. 그 숙명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개혁해서 혁명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4단계 사회적 장치가 기호학에서 연구되는 모달리떼³⁾다. 칼 맑스의 인생 그 자체가 이런 연구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일상의 흔적들을 이 모달리떼의 기술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런 관계성에서 1800년대의 인본주의적 자연 사상운동이 유학생 자녀도 의사가 되고, 난민 출신도 소방관이 되고, 고아 출신도 장관이 되고, 노예 후손도 대통령이 되는 사회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배경을 잉태한 산파 역할을 했다고 볼 때 칼 맑스의 재조명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점을 ⁴⁾ 가능하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런 해결 정책을 위해서도 이 논문의 고찰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텍스트 설정을 구성한다. 텍스트는 숫자를 첨부하여 모달리떼 구성에 따라 시퀀스 형태로 전개하는 방식을 존중한다. 이 논문에서 설정하는 공산 동맹 선언문은 텍스트로 재구성되며 독일어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논문 주제에 맞게 재구성된다. 동학농민군의 선언문은 폐정 개혁안과 홍범 14조 그리고 사발통문에 기술된 선언문을 기본 텍스트로 재구성하며, 순서는 논문 주제 전개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한다.

3)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모달리떼는 모드에 대한 4가지 단계의 완성된 행위 인식 언어이다. 이 양식은 정치 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구조 설정에 있어서 밑그림의 도안같은 역할을 한다” 21~32 쪽 참조.

4) 강윤철 편역, 『피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 스타북스, 2018, 20~25쪽, 39~52쪽, 94~112쪽, 200~219쪽 참조.

II.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텍스트로의 전환은 공산 동맹의 사상적 언어와 동학 농민군의 현실적 언어를 되살려보기 위한 시도이며, 언어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혁명적 힘을 기호학적 시퀀스로 재구성해 보고자 함이다.

텍스트 1은 공산 동맹 선언문으로 설정하며 원문 전체에서 논문 주제와 맞는 항목을 선정하여 재구성하며 텍스트 1로 표기한다.

텍스트 1: 공산 동맹 선언문 :

- ① 토지의 국유화,
- ② 강도 높은 누진세,
- ③ 상속권 폐지,
- ④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 ⑤ 국가자본에 의한 국립은행 설립,
- ⑥ 운수기관의 국유화,
- ⑦ 농촌과 도시의 대립 제거,
- ⑧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텍스트 2 :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 ① 각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 ② 탐관오리의 그 죄목을 조사하여 하나하나 엄징할 것,
- ③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을 징벌할 것,
- ⑤ 노비문서는 태워버릴 것,
- ⑥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씌우는 평양笠(平壤笠)을 벗게 할 것,

- ⑦ 청춘 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 ⑧ 무명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 ⑨ 관리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 위주로 할 것,
- ⑩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 ⑪ 공사채를 막론하고 지난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 ⑫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등이다.

텍스트 3 : 사발통문 : “낯네낯서 난리(亂離)가낯서”

- ① 고부성을 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죽일 것
- ②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③ 군수에게 아부해 백성에게 탐학한 벼슬아치를 징치할 것
- ④ 전주성의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텍스트 4 : 하나의 유명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명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모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이다"

"부르주아지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무정한 '현금지불'이외에 인간들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도 남겨놓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 버렸고, 인간의 자유를 단 하나의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로 대체했다"

"부르주아 계급은 가족관계 조차 감상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순전히 금전 관계로 만들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유란 상거래의 자유, 판매와 구매의 자유일 뿐이다"

"부르주아지가 봉건제를 무너뜨릴때 사용했던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겨누게 되었다. 그 무기를 휘두를 노동자 계급을 낳았다"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도 성

장한다"

"노동자는 분업과 기계화로 말미암아 이제 단순한 도구나 부품이 되었고
매시간 감독하는 관리자, 사용자, 부르주아, 그리고 그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세력으로 만든다. 이리
하여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 낸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소유(관계)를 폐지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처음이 아니다. 프
랑스혁명에서 부르주아지는 봉건적 소유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그리
고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독점했다. 해서 사적소유를 폐지하고 박탈
한 것은 부르주아지이다. 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은 노동하고도 소유하지
못했고 부르주아지는 노동 않고 소유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누구에게도 생산물을 취득할 힘을 빼앗지 않으며 다만 이런
취득을 통해 타인의 노동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힘을 박탈 할 뿐이다"
"한 시대의 지배사상은 늘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 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 한다"

"프로레타리아가 잃은 것이라곤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텍스트 5 : 홍범14조

텍스트 3의 영향은 이 텍스트 5로 표출된다. 텍스트 2의 효과로 이어

지는 텍스트 3의 본질은 농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과 화약과 관리와 지배에 대한 모달리떼 시퀀스가 텍스트 3에 적혀있다. 만석보의 자연적인 삶의 현상에 대해 조병갑은 수탈과 착취의 계략으로 농민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략시켰고 이 텍스트는 이 전략사건에 대한 대항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공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자연적인 학대는 권력의 최 정점인 관리와 그 지배자인 왕권에까지 인식의 폭이 넓혀짐으로서 농민들의 정체성이 복종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주적인 삶에 있음을 적고 있다. 이런 사상적 흐름에서 고종은 홍범 14조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통치 규칙서로 오늘날 헌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혁문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적고 있고, 홍범문은 권력유지의 입장에서 통치 목적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그 차이를 모달리떼 양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 제2조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 제8조 왕실은 술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III. 모달리페와 상징성

1. 모달리페는 근대성을 논하는 실천철학적 담론에서 양상이나 양태라는 1차적 의미의 문법적 틀에서 그 의미가 확대된 개념 중의 하나다. 개인이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단체나 공공 혹은 사회시스템을 요구하는 근대적 상황에 직면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서 이 문법적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영역과 범위가 개인이나 특정 계층에서 단체나 공공의 전분야로 확대를 요구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개념 확장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 모달리페 개념 또한 그 영역과 범주에서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 확장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 이런 근대성을 바탕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달리페는 4가지 단계에 의한 관계성으로 설정하며 이 설정된 요소들은 상징성을 통해서 그 의미와 관계를 갖게 된다. 모달리페는 4종류가 있다. 4가지 모달리페⁵⁾는 의지와 앎의 단계 그리고 능력과 의무이행 단계로 구분하여 이 단계별 상호 관계성이 어떻게 선언문과 개혁문에서 그 상징성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자유의지의 양상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어떤 모달리페로 그 상징성을 내포

5)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I*, Klincksieck, 1985 참조.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현상은 칼 맑스 전 생애를 포함한 생활의 모습이 이 논문의 텍스트로 재해석되며 그의 삶의 선언문적인 철학적 태도가 그 해석의 지침이 된다.

자유의지의 모달리떼

텍스트 1에서 시공간적인 변동사항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노동의 현장에 투입되는 실상에서 칼 맑스는 위기의 의식을 적고 있다. 1일 2회 교회로 출근하던 사회 모습이 거대한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 현장으로 투입되는 과정을 마치 인간성 상실의 행렬처럼 묘사하고 있다. 아침햇살은 다른 영역의 것이며, 자유로운 사고는 사치가 되어가는 일상이 선언문에서는 삶의 최악의 과정으로 긴박하게 나타난다. 자본의 독점과 소유권의 확대 그러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어린아이의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희망이 무너지는 사회현상을 관찰하면서 칼 맑스는 자신의 일상을 대비해본다. 5년 동안에 3명의 자녀를 잃고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예나를 보면서 칼 맑스는 자신의 가정이 사회의 현실임을 동일시한다. 그의 시공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다. 그의 공시적 역사관은 이런 공간 일치를 통해 통시적이며 심층적 구조를 구축하는 자연스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는 이런 자신의 사회적 일치감이 된 구조에서 자본의 폐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부수어야 할 필연적 숙명임을 확신한다. 이런 일치성에서 그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것이 의지 모달리떼로 선언문이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구미대륙까지 번지고 있는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개혁문의 ‘의지 모달리떼’⁶⁾ 역시 개인의 문제와 사회문제가 동일시 되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봉

6)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21-32쪽.

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옆집의 농민의 문제이며 친구들의 문제와 관계되어 사회적 문제로 작동하며 이러한 현상은 수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점에 대한 고찰이다. 전봉준이 봉기를 한 것은 옆집 친구의 하소연에서 비롯됨을 볼 때에 자신의 문제가 사회문제와 동일시 되는 현상은 인류애적 정신으로 박애사상의 근본으로 설명된다. “낫네 낫서 난리(亂離)가 낫서”⁷⁾ 이런 동일시 현상의 작동에서 동학농민군의 ‘의지 모달리떼’는 사회정의 확립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선언문과 개혁문에 표출된 ‘의지 모달리떼’는 다음의 행동 강령을 하게 된다. 사회부조리에 대한 강한 인지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마음속의 언어로부터 그 첫 번째 인지가 이루어지고, 이 인지된 의식은 그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탐구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기호학에서는 이 다음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앎의 모달리떼’⁸⁾로 규정하며 4단계 중에서 그 두 번째 실행단계로 매우 중요한 역할로 본다.

앎의 모달리떼

텍스트 1과 2에 대한 의지 모달리떼가 그 형태를 갖추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두 번째 양상인 앎에 대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신의 부당한 의지에 대한 항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호학에서는 이 과정을 ‘앎의 모달리떼’⁹⁾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언문과 개혁문에 대한 소외계층의 본질적 문제 제시가 사회 현상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 두 선언문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권력과 착취에 있음을 적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제거를 적시하고 있다. 대화나 하소연 혹은 읍소 형태의 자세로는 적재된 사회 문제 해결의 발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지 현상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7)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국가기록소 보관.

8)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et II*, Klincksieck 참조.

9) *Idem*.

회합과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상호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이 ‘삶의 모달리떼’ 인식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런 두 번째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의 양상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국유화, 강도 높은 누진세, 상속권 폐지,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국가자본에 의한 국립은행 설립, 운수기관의 국유화, 농촌과 도시의 대립 제거, 아동의 공장노동 폐지 등과 같은 사회적 적폐가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본가의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 칼 맑스는 모달리떼 행동 강령으로 그 중심점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문제에 대한 의식의 의지는 형성이 되고, 이 인지 현상을 행동화하려는 과정이 모달리떼 인지 과정인데 선언문은 바로 이러한 실천의 기술을 정확하게 제공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고부성을 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죽일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해 백성에게 탐학한 벼슬아치를 징벌할 것, 전주성의 전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를 실행할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능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개혁문에 적고 있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각각의 의지와 그 의지의 실행적 지식을 축적한 다음에 다음 단계의 행동을 준비하게 된다. 그것은 ‘능력의 모달리떼’다.

능력의 모달리떼

이것은 능력발휘와 행함의 모달리떼로 혁명적 성격의 지침에 있어서 기본이며 필수적인 항목으로 연구되는 부분이다. 모달리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이제는 행동단계에서 그 힘을 갖추는 과정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을 적시하는 것이다. 텍스트 1과 2에 적시된 선언 내용은 이론적 발전을 요구하는 단순 알림장이 아니다. 시작은 개인의 목숨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의 삶의 양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고 준비해야 하는 모달리떼다. “낫네 낫서 난리(亂離)가 낫서” 이 시퀀스에서 우리는

동서양의 난리의 형태에 대해 조명해 볼 수가 있다. 난리에 대해 칼 맑스는 선언문으로 대항을 하고 자신의 삶으로 방패막이를 삼는다. 그의 능력은 저항하는 능력이다. 항거하고 대항하고 그 부조리위에서 전진하는 방식이 칼 맑스의 ‘능력 모달리떼’다.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불행이 자신의 힘이 되고 이 힘 속에 노동자와 농민의 가치를 심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노동자 농민의 의지가 썩어지고 그 썩은 나무에서 과실이 반드시 열릴 것을 그는 인류애적 사랑 속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런 힘이 그를 죽을 때까지 무국적자로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며 그 선언을 살아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텍스트 1과 2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모달리떼까지 완성한 인간 의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것은 ‘의무의 모달리떼’로 실행의 최종 단계이다.

사회환원과 의무이행의 모달리떼

사회 고통을 해결함으로서 만민에게 고통보다는 슬픔을, 착취보다는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의지는 그 실천을 요구한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싫든 좋든 촉진시키지 않을 수없는 산업의 발달은 노동자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연합을 통해 그들을 혁명세력으로 만든다. 이리하여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들을 양성해 낸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몰락과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는 피할 수 없다"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가 잃은 것이라곤 쇠시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 텍스트에서 선언문은 자신의 언어로 모달리떼를 완성시키고 있다.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지할 것과 그 인지의 행동자가 되어서 혁명을 완수하는 자연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 한다”.

개혁문의 완성도 바로 이 문서에서 제시하듯이 동학농민군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서 모달리떼 행위 모델을 완성하는 양상을 갖는다.

2. 선언문의 상징성에서는 고용과 임금 그리고 명령과 감시, 난민 칼 맑스와 피고 전봉준, 53개 집강소와 38개 분리된 독일 통일, 11명의 장례식과 사회민주주의, 직조봉기와 기근봉기라는 기호학적 이조토피의 요소를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의 범주에서 살펴본다.

IV. 표층과 심층구조 : 계약과 임금 : 명령과 감시

봉건시대의 표층구조는 왕과 영주 귀족과 평민과 노예다. 자본시대의 표층구조는 고용주와 고용사장이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이러한 계층구별은 표층과 심층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의사 결정권의 유무에 따라서 기호학에서 구별되는 주체와 대상의 항목은 표층의 시대임을 이런 분류항에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여전히 그대로 대상으로 다시 전략한다. 노동자는 일한 만큼 그 댓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자유스런 노동계약이 환상적으로 보인다. 칼 맑스에게 있어서 이것은 표층의 문제로 본다. 오히려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부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산층은 자신의 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표층적 구조에 대해 큰 저항을 표현하지 않는다. 자본가는

더 환상적으로 사장이라는 고용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는 이 환상에 희망을 걸게 되기도 한다. 공장과 회사라는 도시의 산물들이 제시되고, 토지를 버리고 도시의 빈민이 되어 고용생활을 하면서 노동자는 자신의 사상도 잊어버리게 된다. 고향이 멀어지고 마침내는 돌아갈 곳이 없는 우주의 미아같은 심정을 각인하게 되는데, 착취된 노동력 만큼이나 존재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게 된다. 감시와 명령의 체제가 구축된 노동계약의 시장에서 자본가는 명령의 권위를 가지게 되며, 노동자의 의지는 복종하는 미덕으로 미화되어 최고의 자본가 시스템에 완전히 귀속된다. 이것이 칼 맑스가 고발하고자 하는 자본의 심층구조다. 봉건시대의 표층적 구조가 그대로 자본시대의 구조로 그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그 어떤 계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심층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칼 맑스를 평생동안 난민으로 살다가 난민으로 죽게 하는 투쟁의 과정으로 기술하게 한다.

난민 칼 맑스와 피고 전봉준

이 두 사람의 상징성은 오늘날 민주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동서양의 공시적 사회적 모순이 선언문과 개혁문을 통해 통시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는 그 실천 강령이 선언문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정책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시민들에 의해 재정립되고 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 상징이며 인류의 기호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난민 칼 맑스의 철학관은 ‘나는 모반자가 아니라 철학자’이다. 독일 난민인 그는 우주의 난민으로 남기를 자청했다. 그것이 그의 선언문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했고 실천했고 그것을 남겼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전봉준의 개혁문도 그 반열에 있다. 인류의 사상이 동일시 되는 현상으로 노동자 농민 뿐 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방향을

시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유익한 자본서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두 선언문과 개혁문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은 UNESCO 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다. 역사의 피고 전봉준의 발자취의 상징성이 비단 조선인의 역사를 넘어 전 인류의 역사의 발자취임을 증거하는 문언이다. 그의 언어는 이미 개혁문과 사발통문을 통해 적고 있으며 또 다른 그의 언어는 그를 심판하고 사형을 처한 재판관의 언어를 통해 심층구조로 남아있다. 실상과 허상. 표층과 심층은 우리사회의 등불이다. 재판 전문 전체를 그대로 소개함으로서 동학농민군의 언어를 이 논문에서 재검토 한다. 피고 전봉준 : 제37호[第三十七號] 판결선고서원본 [判決宣告書原本] 전봉준(全琫準).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피고 전봉준(全琫準). 나이 41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한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해보았더니, 피고는 동학당이라고 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이고 접주(接主)로 불린다. (...) ...그 다음해 11~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잡혀 옥(獄)에 갇히게 되었다. (...)...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국결(國結)을 늘이지 말 것, 보부상(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도내(道內)의 환전(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浦口)에서 잠상(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동포전(洞布錢)은 호(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官爵)을 팔며 국권(國權)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관장(官長), 수령이 된 자가 해당 경내(境內)에서 장사(葬事)를 치루거나 전답(田畓)을 사지 못하게 할 것, 전세(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연호잡역(烟戶雜役)을 줄일 것, 포구어염세(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보세(漕稅)와 궁답(宮畜)은 시행하지 말 것, 각 읍(邑)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偷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하였다. (...)... 피고가 일본군을 더 치려 하였으나 일본군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그 사이 피고의 포(包)중에서 〈병사들이〉 점점 도망가고 흩어져서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다. (...). 그래서 상인(商人)처럼 하고 혼자 상경(上京)하려고 태인을 떠나 전라도 순창을 지날 때에 민병(民兵)에게 잡힌 것이었다.

위에 적은 사실은 피고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慶善) 등이 자백한 공초(供招) 및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하다. 그 행위는 대전 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에,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官門)에서 변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고 하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의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 504년 3월 29일 법무아문(法務衙門) 임시 재판소가 선고한다.

법무아문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법무아문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법무아문 참의(參議) 장박(張博)

법무아문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법무아문 주사(主事)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일본제국(京城駐在日本帝國) 영사(領事)

우치다 사다츠지(內田定槌)¹⁰⁾

이 외에도 53개 집강소와 38개 분리된 독일 통일과 11명의 장례식과 사회민주주의의 현실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

10) 「형사재판원본(刑事裁判原本)」 국가기록소.

서 자유로워지고 자연인의 삶을 강조하는 칼 맑스는 죽을 때까지 난민으로 삶의 모달리떼를 실천했다. “아침에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가축을 돌보며 식사 후에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삶의 일상을 비평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틀을 스스로 존중하며 제도화 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봉건 군주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단결하는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선언문에서 행동강령으로 나타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침대와 식탁 정원 거리 광장 모든 공간은 그에게 투쟁의 대상이다. 이런 대상들이 사회적 가치를 향해 상징이 되고 그 상징이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직조봉기와 기근봉기의 재봉사인 빌헬름 바이틀링은 “무지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¹¹⁾고 강조한다. 칼 맑스도 진정한 귀족은 교양이라고 강조한다.

자본과 노동의 문제는 이제는 소득과 분배의 문제로 이분화 되어서 여전히 유령처럼 인류 사회를 떠돌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표층구조가 기표처럼 난무하여 사회 구조를 고정시키며, 노동자의 자유는 심층구조에서 잠들고 있는 현상이다. 마치 신의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미화했던 칼 맑스 시대의 사회에서 5년 동안에 3명의 자녀를 잃은 참담한 철학자 칼 맑스 생애의 모습이 그대로 현대 사회에도 진행되고 있다. 칼 맑스의 자본론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지금도 칼 맑스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도의 배고픔에 대한 사회적 출구를 공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요당했던 40년 동안의 굶주림을 칼 맑스는 민주주의로 채워나갔듯이 최고의 자본은 바로 자유이고 그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라 사람, 노동하는 자연인임을 대항적 요소로 제시하는 에너지가 요구되는데 이것

11) K. Mark, 『포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19세기 경제학의 혁명적 이론과 통찰력』, 스타북스, 2018, 6~8 쪽, 225~260쪽, 86~88쪽, 212~219쪽, 100~107쪽 참조.

이 바로 모달리테의 인식으로 오늘날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자본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장에서 실을 뽑아내듯 이윤을 얻어내는 자본가의 실상을 엥겔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방식 공장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이런 현상에 대해 선언문에서 타파해야 할 멸종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과 노동은 삶의 윤택을 위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으로서 박멸의 대상이었고 선언문을 발표한 목적 또한 이 모순적 대상들의 영구 추방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철학가이며 혁명가이면서 자유인이고 그러면서 민주시민이며 망명가와 저술가였던 칼 맑스의 삶은 모달리테의 완성 바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며, 동학 농민군의 대장 전봉준과 전 세계 노동자의 대장 칼 맑스의 자유인으로서의 민주 사회주의에 대한 선언문의 사상은 모달리테의 강령으로 계속 연구 될 것으로 본다.

V. 결론

최시형에게 사형을 내린 재판관은 조병갑이다. 그는 고부군수였으며 동학 농민군의 수탈 주체였다. 전봉준을 밀고하고 사로잡은 자는 그의 친구이며 동료 농민들이다. 교조주의와 회의주의가 만연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현상금이라는 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반인륜적 폐륜행위가 자본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런 밀고가 정당화 되는 역사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 맑스 뿐 만 아니라 훨씬 후대 사람인

뿔 리콥르¹²⁾도 역시 이런 살인적 제도에 대해 현대에 까지 자행되고 있는 그 폐단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에게 주어진 시공에서의 현상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어느 선에서 이 규칙을 반칙으로 바꾸고, 억압과 통제로 감시체제를 구축하면, 이 자연 규칙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구조이다. 이 구조의 틀을 칼 맑스와 동학 농민군은 부당하게 여겼으며, 없애야 할 필연적인 항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부르조아는 이 억압의 틀을 자본으로 구축하고 노동을 만들어 내며, 프로레타리아는 그 노동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본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두 선언문은 고발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칼 맑스의 사상은 독일 계몽 철학과 프랑스 민주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영국 정치경제학이 유물론적 변증법과 합류함으로써 사회개혁은 물론, 정책 시스템 구축까지도 가능했으며, 그가 주장하는 세계를 변혁하는 혁명적 원리로서 근대 사회 이론의 주춧돌로 우뚝선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의 체계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언문과 개혁문은 단순 지침서를 넘어서 행동강령과 그 실행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모달리떼 완성의 문언이다. 각 단계별 모달리떼는 그 의지와 실행의 과정에서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며, 이 상징성은 현재는 물론 내일의 정책까지도 알려주는 양상을 적고 있다. 이것이 이 두 선언문의 심층구조이며 통시적 관점을 현실화 하는 작업이 학문의 체계로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칼 맑스의 일생의 생활이 난민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인류의 마지막 난민이 되어 노동자 농민의 난민 같은 일상을 죽어서도 지키겠다! 는 칼 맑스의 철학은 오늘날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인류의 숙제로 본다.

12) 선미라 · 이봉지 외, 『뿔 리콥르, 삶의 의미들』, 동문선, 2003, 369-380쪽, 589-599쪽, 499-510쪽, 539-554쪽 652-659쪽 참조.

참고문헌

- 국가기록소, 「전봉준판결선언서(全琫準判決宣言書)」, 2018.
- _____, 「형사재판원본(刑事裁判原本)」, 2018.
- _____, 「고종·홍계훈(高宗·洪啓薰)의 문답사초(問答史草)」, 2018.
- 김용덕, 「격문을 통해서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1974.
- 리콥르, 뵐 · 무니에, 임마누엘, 「인격주의 철학」, 『에스프리』, 1950, 12월
- _____, 「대학 만들기」, 『에스프리』, 1964, 5. 6월호
- _____, 『의지의 철』 1권, 1950.
- _____, 「젊은이들의 열망들」, 『신앙과 시대』 5호, 1971.
- 무니에, 임마누엘, 「인격주의 선언」, 전집 1권, 1936,
- _____, 「새로운 르네상스」, 『에스프리』 제1호, 1932, 10월.
-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1』, 봉봉2, 2017.
- 선미라 외, 『대동학세계사상 2』, 봉봉2, 2018.
- 선미라 · 이봉지 외, 『뵐 리콥르, 삶의 의미들』, 동문선, 2003.
- 조광한, 『전봉준과 동학혁명』, 살림터, 2014.
- 정부기록 보존소, 『동학관련 판결문집』, 충무처, 1994.
- 필리프, 앙드레, 길드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주의』, PUF, 1923.
- 한나 아렌트, 『정치적인 삶』, 갈리마르, 1974.
-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klincksieck, 1984.
- J. CL.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I, klincksieck, 1985.
- K. Mark, 『피케티가 되살린 마르크스 자본론-19세기 경제학의 혁명적 이론과 통찰력-』, 스타북스, 2018.

The modality and the symbol of the reform in donghak and the declaration in K. Marx

Sun, Mira

This article is a study of Karl Marx's manifesto and the reform in donghak for the modality and their symbolism. As a text,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declaration on the Communist Alliance and the reform program of the peasant Donghak were choose.

This Declaration and the Reformation are the works of philosophical practice discourse of the 1800s in this article, which unfolds paradigmatically, deriving its common symbolic meaning in the semiotic sense, and evolving ideologically towards a democracy free of property. In the end, these two historical incident which are published in the contemporary breath, constitute an accusation against a nonhuman policy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Twice a day, the space of the church is transformed into a factory, the act of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by capitalist and work and divorcing by accident is embodied as a social ethic. It is against the phenomenon that the structure of which no man exists is no longer institutionaliz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aimed at breaking the framework of this hunt manifests itself in the two manifestos mentioned above, and Karl Marx completes the culmination of the utopia that must be achieve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Communist Alliance by placing his being in the position of "eternal refugee". By choosing to die in his freedom developed during Jeon Bong-joon's trial, he also completes the people's spirit of revolution.

In the case of simultaneous exploitation in East and West, the form of oppression is the withdrawal of capital from domination and power, and a new alternative to this is the philosophical context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a new paradigm with "man is the greatest capital".

Keywords : Karl Marx, Donghak peasant movement, A statement on a bowl,
Declaration of the reform. Modality, Semiotic, Symbol. Modernity, Jeon
bongjun, revolution. Coquet

투고일 : 2018. 11. 23. / 심사일 : 2018. 12. 10. / 심사완료일 : 2018. 12. 17.